

# 볼넷 퍼주는 한화... 맥없이 자멸

SSG에 한 경기 사사구 11개 헌납 두 자릿수 볼넷 올 시즌 세 번째 김서현·정우주 등 영건이 날발 2위 kt wiz보다 53개나 더 내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마운드의 볼넷 허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SSG 랜더스에 볼넷 10개와 몸 맞는 공 1개를 합쳐 사사구 11개를 헌납하고 1-6으로 졌다.

한화 투수진이 한 경기에서 두 자릿수 볼넷을 준 건 키움 히어로즈와 치른 3월28일 정규리그 개막전(볼넷 11개·몸 맞는 공 1개), 14일 삼성 라이온즈전(볼넷 16개·몸 맞는 공 2개)에 이어 시즌 세 번째다.

특히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역대 한 경기 팀 최다 볼넷 허용 타이 기록을 썼다.

한화 투수진의 대들보 류현진(39)이 극도로 볼넷을 싫어한다는 건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실제 류현진은 24% 이상을 던지는 동안 볼넷을 단 2개만 허용했다.

한화 이글스 투수진 볼넷 허용 현황 4월29일 기준		
구분	기록	내용
팀 총 볼넷 허용	137개(리그 1위)	최저 팀(kt) 대비 53개 많음
구원진 볼넷 허용	87개(리그 1위)	리그 평균(57개) 대비 30개 많음
9이닝당(BB/9)	5.27개(리그 1위)	-
경기당 평균 투구 수	163.7개(리그 1위)	최저 팀(NC) 대비 약 14개 많음

  

경기별 관련 기록		
구분	경기 일정	기록
주요 볼넷에 경기	3월28일 vs 키움 (개막전)	볼넷 11개, 사구 1개
	4월14일 vs 삼성	볼넷 16개(최다타이), 사구 2개
	4월29일 vs SSG	볼넷 10개, 사구 1개

제구난조 주요 영건 김서현(14개), 황준서(12개), 정우주(11개)

그러나 김서현(14개), 정우주(11개) 두 볼펜의 중추는 물론 황준서(12개) 등 영건들이 타자들을 무상으로 베이스로 보내는 일이 잦다.

지난달 29일 현재 한화는 팀 볼넷 137개를 내줘 이 부문 부동의 1위를 달린다. 가장 적은 kt wiz(84개)보다 53개나 많고, 리그 평균(108개)을 훨씬 웃돈다.

특히 구원진의 볼넷 남발이 심각해 리그 평균(57개)보다 30개나 많은 87개를 기록 중이다. kt 볼펜(42개)의 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당연히 9이닝당 볼넷 허용 수치도 5.27개로 가장 많다.

경기당 투구 수도 163.7개로 불명예스러운 으뜸이며, 한화 투수진은 가장 적게 던지는 NC 다이노스 투수진(149.6개)보다

경기마다 14개를 더 던진다. 공 14~15개는 보통 이닝 투구 수다.

볼넷 남발의 폐해는 야수들의 수비 집중력 저하, 옛가락처럼 늘어지는 경기 시간으로 나타난다.

한화의 정규이닝(9이닝)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12분으로 리그 평균보다 9분 길고, 가장 짧은 키움(2시간 57분)보다 15분

더 한다.

한화 투수들이 이렇게 볼넷을 많이 내주는 데는 기술적·심리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건들은 많은 기회를 잡고도 볼 배합, 타자 공략, 경기 운영 등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어이없게 빛나간 볼이 너무 많다.

선발진이 작년만 못하다는 점도 불펜에 악영향을 준다.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걸출한 워 투펀치가 마운드를 이끌던 지난해에는 여러 투수가 비교적 편하게 경기 후반을 나눠 맡을 수 있었지만, 두 투수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올해 불펜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구원진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승부처에서 밟고 내보낼 투수가 마땅치 않아 불펜 운용도 자연스럽게 꼬였다.

날마다 순위가 갈리는 1군 '전쟁터'에서 단기간에 볼넷을 줄일 목표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타선이 좀 더 힘을 내 마운드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글·사진=연합뉴스



## 호날두, 970호골 알나스르 20연승 행진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가 개인 통산 970호골을 터트리며 소속팀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전 20연승 행진을 이끌었다.

알나스르는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 아말 파크에서 열린 알힐랄과 2025-2026 사우디 프로리그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알나스르는 정규리그에서 1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79를 쌓아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알힐랄(승점 71)과 승점 차를 8로 벌리며 정규리그 종료까지 4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특히 알나스르는 정규리그 16연승과 더불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2)에서 따낸 4연승을 합쳐 최근 공식전 20연승을 질주했다.

알나스르는 이날 정규리그 2위 알힐랄과 맞대결에서 전반 31분 터진 호날두의 선제골로 승기를 잡았다.

호날두는 중앙 펠리스가 차올린 왼쪽 코너킥을 골지역 왼쪽 부근에서 번쩍 솟아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꿔 알힐랄의 오른쪽 골대 상단에 볼을 꽂았다.

이번 득점으로 사우디 프로리그 무대에서 이번 시즌 25호골을 작성한 호날두는 개인 통산 득점을 970골로 늘렸다.

호날두는 프로 무대에서 827골,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143골을 뽑아내 970골을 맞으며 1000골까지 30골을 남겼다.

## '상무 프로야구단' 운영 나선다

축구처럼 지자체 스폰서 추진 퓨처스리그 자생력 강화 속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퓨처스리그 자생력 강화를 위한 '2군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군 구단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받은 KBO는 퓨처스리그 산업화의 첫 단계로 군부대 팀인 상무 피닉스 구단의 연고지 및 네이밍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구계 관계자는 "KBO는 프로축구 K리그1의 김천 상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상무 야구단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며 "상무 구단의 홈구장이 있는 경북 문경시를 비롯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상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과 KBO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선수들은 병사 급여를 받고, 코치진 인건비와 훈련비, 경기 운영비는 10개 구단이 부담하는 KBO 회비로 충당된다.

지원 규모가 제한적인 탓에 경기장과 훈련 시설 관리, 마케팅 활동은 다른 프로구단처럼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KBO는 K리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구단 운영을 맡아 지원할 경우, 홈구장과 훈련 시설을 보완해 프로구단에 걸맞은 훈련 및 경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야구팬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자는 "현재 상무 야구단은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중 유치 등 수익 창출, 마케팅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K리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프런트 조직을 꾸려 지원한다면 관람 환경 개선과 팬층 확대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 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매력적인 자산이다.

대부분의 선수가 각 구단의 주축 선수가 자스타급 자원으로 구성돼 있어 타 구단 2군 선수단보다 흥행 면에서 유리하다.

타지역 야구팬들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상무 구단은 선수 인건비가 들지 않고 스카우트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북 김천시는 프로축구 김천 상무 구단 운영에 연 20~30억 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프로야구 2군 구단 울산 웨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퓨처스리그 산업화의 첫 단계로 군부대 팀인 상무 피닉스 구단의 연고지 및 네이밍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즈를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연 지원금(60여 원) 절반 이하 규모다.

KBO 총재 어드바이저인 전용배 단국대 스포츠과학대 학장(스포츠경영학과 교수)은 "현재 프로야구는 12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로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제는 퓨처스리그의 외연 확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퓨처스리그의 산업화는 한국 프

로야구가 더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무 구단의 스폰서 유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KBO리그는 장기적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식 마이너리그 운영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프로야구 1군 구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한서 플러스**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